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 9.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9월 2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장재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 대상인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건립 부지매입 및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화력발전소내 주민편익시설을 착공하고자 마포구가 소유한 마포구 당인동 1-28외 1필지(657㎡), 서울시가 소유한 당인동 1-29필지(2,673㎡)를 토지매입에 필요한 금액 5.331백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규모는 대지3,330㎡, 연면적4,570㎡이며 지하2층 지상3층 건물 규모로써 주민편익시설 착공에 필요한 자원 구비 9.208백만 원, 발전소지원금 6,000백만 원, 구비 7.120백만 원 필요로 하는 내용임.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관리계획안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화력발전소 내 토지교환 계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환된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87년간 수도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발전소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면에는 발전소에 인접한 주민들이 매연으로 피해를 받아 발전소 이전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음

발전소의 지하화가 결정된 후, 주변지역은 지상부 공원화, 문화창작소 건립 등 복합문화벨트가 조성됨에 따라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계약체결이 완료된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해당부서에는 예산확보 일정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변지역 구민의 여론조사 결과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만족도 높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